

2013.02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다일공동체
www.dail.org

다일 공동체

“청량리에서
탄자니아 쿤두치까지...”



“아프리카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새해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서 또 하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뒷골목
이었던 청량리 588에서처럼 탄자니아의 도시 빈민촌 알
리마우아 뒷골목에서 희망의 씨앗을 만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40만이 살아야 할 이 도시에 현재 400만 이상이 살고
있는데 4/5이상이 도시빈민입니다. 그 도시 빈민 중에서
도 이 마을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고단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순수하고 깨끗한 눈망울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낯선 저에게 달려와 너나 할 것 없이 품 안으로 안기는 바람에 금방 땀과 눈물로 범
벅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내면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 너희들이 희망의 씨앗이야! 너희들이 아프리카의 미래야!”

25년 전 청량리역 광장에서 들었던 마음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일도야,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이 도시 뒷골목에서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려무나! 일도야, 낙심치 말고 작은 것
부터 주저하지 말고 너부터 희망의 씨앗을 심으려무나!”

저도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서 그리고 제 입술에서부터 터져 나온 외침과 리듬을 따라 빈민촌 골목골목을 뛰
어다니며 “나쿠웬다! 아프리카!” “나쿠웬다! 탄자니아!” “아우어 칠드런! 아우어 호프!”를 외치자 언어와 피
부색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처음 만났음에도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어울림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쿤두치 채석장에 다일공동체를 세우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일은 우리들의 몸부림으로 작게나마 실현되었습니다.
탄자니아 땅에서 모두가 함께 불렀던 희망의 노래를 후원회원님들께도 전해드리며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
립니다.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 내는 많은 일을 보고, 느끼며 함께 할 수 있는 후원회원님들이 곁에 계셔서
감사 또 감사합니다. 다일공동체는 후원회원님들의 사랑을 가득 담아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달려가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다일공동체입니다.

* ‘나쿠웬다’ 는 스와힐리어로 “사랑해요” 라는 뜻입니다.

2013년 2월에
작은형제 **최민도** 목사 올림

Focus 밥&꿈 꿈꾸는 호박죽

꿈꾸는 호박죽

노란 호박죽 한 그릇에 사랑을 담아 전합니다.
노란 호박죽 한 그릇에 해외 아동들의 꿈이 담겨있습니다.
그 사랑과 꿈이 중국, 캄보디아, 네팔 그리고 탄자니아까지 전해집니다.

추운겨울 거리 상점에서 호박죽을 팔고 계신 후원자님은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다일의 사역지마다 전자피아노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겨울에는 특별히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의 개원 이야기를 듣고
전자피아노와 함께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싶었던 꿈을 이루고자
후원을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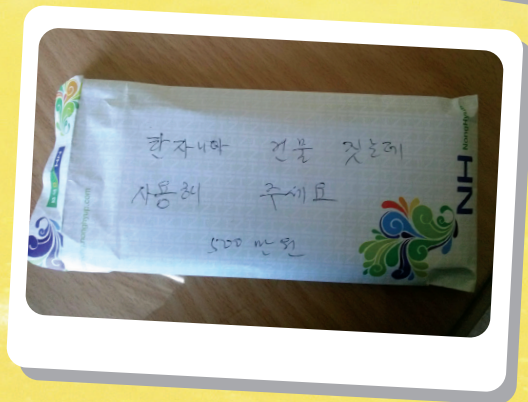
“그런거 잘 몰라요, 그냥 더불어 살았음 좋겠어요. 어느 곳에서는 굶어죽고 어느 곳에서는 배불러 죽는 모습을 보며 굶주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동 결연 이었고요. 현재는 여러 명의 아동들을 결연하고 있는데 지금의 생활비로는 더 이상 후원 할 수가 없어 고민하던 중에 호박죽을 팔며 팔면 되겠다며 거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더 나이 들고,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다는 생각 뿐이죠...”

다일의 사역지마다 전자피아노를 후원해주시는 특별한 이유?

“어렸을 적 시골에서 피아노라고는 한 번도 본적이 없었는데, 교회에 가니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마음에 떠들떠들 찬송가도 쳐보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음악을 통해 변화도 경험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해본 적 없고, 악보도 볼 줄 모르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세계 공통어인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가 되고, 삶이 변화되고, 배움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말이죠..^^”

올 겨울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옵니다..
 추위 속에서도 매일 화랑대 앞 노점에서 호박죽을 파는
 후원자님의 빨개진 두 볼 가득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도 호박죽 한 그릇에 아이들의 꿈을 담고,
 호박 한 그릇에 사랑을 담아 전하기 때문이죠.

꿈꾸는 호박죽 한 그릇 드셔보실래요?



*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미자 후원회원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더욱 기쁨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Review Dail Love Bazaar



다일사랑나눔바자



‘나눔으로 이어지는 행복한 구매’

바자회를 준비하며 오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물품들을 착한 가격에 구매하고, 나눔에 동참하는 기쁨도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바자회를 여는 날, 점심시간 잠깐 짬을 내서 나오신 분들, 손자를 데려오신 할머니, 밥퍼에서 식사를 하고 오신 어르신들, 동네주민들의 발걸음에 동대문구청 바자회 장은 북적입니다. 장바구니가 묵직해 질수록 밥퍼의 어르신들의 식탁이 풍성해 지고, 필리핀 다일공동체의 도서관 책장의 책이 늘어납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탄자니아다일공동체를 세우는 씨앗이 됩니다. 행복한 구매는 나눔으로 이어져 우리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봉사에 자리에는 늘 누군가 계셨습니다.”

바자회 기간 이틀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건 판매와 정리를 도와준 60여명의 봉사자 분들이 계시기에 바자회 현장이 든든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있고, 손님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항상 기분 좋은 미소를 전해주었습니다. 방학 중인 대학생들도,



수익금 전액을 탄자니아다일공동체로 후원한 착한기업 더카페



영화배우 박성웅 협력대사의 사회로 시작한 바자회



인기 품목중의 하나였던 아동복




어머니 봉사자들의 활약이 돋보인 바자현장



신나는 경품추첨시간

휴가를 낸 직장인들도,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들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다른 봉사자가 채우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봉사자들이 채우며 봉사의 자리에는 늘 누군가가 계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일과 함께하는 친사회기업

* 이번 바자회는 다일의 홍보대사며 연극배우인 윤석화님을 통해 강희숙 패션의 의류를 후원받음으로써 시작하게 되었으며, 동대문구청의 지원으로 2013. 1. 18.(금)~19(토)까지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여개의 착한 기업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일과 함께한 착한 기업들

Dail Love Bazaar



Review 2013 탄자니아다일공동체 개원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이 1월 11일 활짝 열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 뒷골목에서 라면 냄비 하나로 시작한 참사랑의 섬김과 나눔의 물결이 이 곳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전해져서 1월 11일 11시 쿤두치 채석장에서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1988년 청량리 역 광장 바닥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는 25년이 지난 오늘도 처음 시작을 바닥에서 합니다. 채석장 공터 맨땅에 천막을 치고 굶주린 빈민촌 아이들에게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밥으로 전하였습니다.

최일도 목사님과 비전트립팀 여덟 명이 쿤두치 채석장 빈민촌 아이들의 손톱도 깎아 주고 일일이 축복하며 따뜻한 밥을 나누었으며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 '정일' 대사님께서도 오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밥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KOICA 김승범 소장님, 쿤두치 지방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일의 현장엔 항상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김을 실천하는 봉사자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개원식에도 멀리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성배 학장님과 교수님, 학생 19명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고, 아이들과 놀아 주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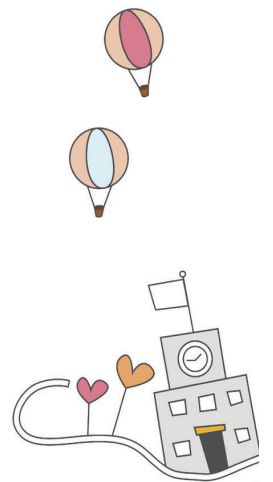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업을 하시는 교민분들과 탄자니아 알리마우아 장로교회 청년, 성도님들이 함께 봉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정에는 한국정책방송 'KTV'가 동행하였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불고 있는 나눔의 한류를 촬영하기 위해서인데요, 최일도 목사님과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도 촬영이 되었으니 KTV를 시청하시면 개원식과 쿤투치 채석장 빈민촌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하신 분들도 방송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탄자니아다일공동체 이야기는 KTV에서 2월 25일 방송예정입니다.

1. 개원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2. 함께 한 정일 대사님과 쿤투치 지방정부 관계자
3. 이 땅에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4. 한국에서 봉사 온 송실대학교 교수님과 학생들
6. 현지 자원봉사자
7. 탄자니아 비전트림팀



해외 다일의 현장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돌을 깨며 생활하는
다섯 자녀의 엄마 필리

Tanzania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개원식이 끝난 후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 채석장 안으로 들어가 돌을 깨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진흙 집에서 5~6명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모두 땅이 꺼질듯 한 한숨과 함께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 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필리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5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37세의 여성입니다.

5분만 서 있어도 머리가 핑 도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온 종일 바닥에 앉아 돌을 깨고 \$1가 채 되지 않는 돈을 벌니다. 이 소식이 최일도 목사님의 페이스 북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는데 미국의 후원회원께서 필리의 자녀 5명(마후무드 14세, 샤킬라 12세, 살라마 10세, 두르파 9세, 야스리 3세)의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



사한지요. 이제 이 사랑의 결연으로 인해 필리네 집은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쿤두치 채석장 빈민촌에는 필리와 같은 가정이 500가구 이상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매 주 토요일에 밥퍼를 실시하며 필리와 같은 가정의 아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만날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탄자니아 미래를 이끌고 나갈 거목이 되도록, 지구촌의 건강한 세계시민이 되도록 굶주려 힘이 없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한 달에 3만원이면 아이 한 명이 굶지 않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 나중에는 한 가정이 자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글/ 변창재(탄자니아다일공동체)



탄자니아 어린이들이 굶주림에서 해방 되고 교육을 받으며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2-2212-8004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해외 다일의 현장 **네팔다일공동체**

Nepal

카트만두를 넘어 네팔을 품에 안으며...



처음가는 1박 2일간의 스텝 M.T

네팔다일공동체 5주년을 맞으며

1월 11일은 네팔다일공동체 설립 5주년이었습니다. 네팔다일공동체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최대 빈민촌에서 사역을 시작한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마느하르 강변 빈민촌에 자리 잡은 후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5주년을 맞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후원회원님들의 사랑과 성원 그리고 기도 덕분입니다. 지면을 빌어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5년간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밥을 먹은 우리 아이들은 영육간에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모릅니다. 또한 힌두교 빈민촌에서 자연스럽게 '자이머시' 라는 기독교인사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던 네팔의 짐시 아이들도 호프클래스를 통해 희망의 나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텝들은 5년 만에 처음으로 5주년을 맞아 가까운 산으로 1박 2일간 스텝 M.T.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을 모아 찬양과, 공동체훈련을 하고, 1년후, 5년 후 꿈꾸는 자신의

모습과 नेपाल다일공동체의 모습, नेपाल다일공동체의 발전과 마느하르 빈민촌의 발전, नेपाल의 발전을 위한 조별모임과 전체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모임의 결과물들은 नेपाल다일공동체의 2013년도 기도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다일공동체가 그랬듯이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작은 것이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누듯 이제 नेपाल다일공동체도 더 발전하기 위하여 नेपाल은 가난하지만 하루에 1루피씩 후원하고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줄 नेपाल후원자부터 찾기로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의 담요 나눔

추위 때문에 고귀한 생명을 잃는 분들에게 नेपाल다일공동체는 नेपाल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먼저 그 지역에 담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담요라도 있으면 언 몸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어서 동사는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나 그 고귀한 생명을 존중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언제나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에 함께하는 후방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추워서 동사하거나 먹지 못해 죽어가는 분들에게 복음과 빵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박종원 원장(नेपाल다일공동체)





담요보내기 캠페인

국민은행 467701-01-157448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नेपाल에 20년 만에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루에 14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별다른 난방 시설 없는 नेपाल은 정말 춥습니다.
떠라이 지역의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이미 100여명이 동사했습니다.

नेपाल의 떠라이 지방 빈민들에게 만원으로
담요를 선물해 주세요!

국내 다일의 현장 **다일천사병원**



1. 동전과 지폐 가득 우체국 택배로 배달된 후원금
 2. 아무 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후원금



얼굴없는 천사들의 발걸음

성경을 읽다보면 가끔씩 천사들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때로는 흰 옷 입은 모습으로, 때로는 지나가는 행인의 누추한 모습으로, 때로는 위엄있게, 때로는 초라하게...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들의 삶에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지곤 하지요.

다일천사병원 초창기 시절, 때때로 천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적이 꽤 많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술취한 채 찾아온 노숙인들이 엉뚱한 요구를 하였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 하여, 특히 하면 “여기가 무슨 천사병원이었!” 하면서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곤 했었지요.

그럴 적이면, ‘아, 천사병원이어...’ 하는 탄식이 새나왔고, ‘아, 왜 하필 병원 이름이 천사병원일까?’ 하는 원망 아닌 원망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 천사병원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천사병원의 후원자들 자원 봉사자들 모두가 천사같은 분들이었습니다. 후원자들은 대부분이 얼굴없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병원을 다녀가시는 분들 중에도 저희가 뒤늦게서야 비로서 “아, 천사가 다녀가셨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왠 허름한 차림새의 남자 한 분이 들어오시길래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신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아무 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봉투 하나를 쓰윽 내밀곤 소리없이 사라 지셨습니다. 농협 봉투에 5만원권, 만원권, 천원권 등이 섞여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통장의 잔고를 탁탁 털어 서 가져오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우체국 택배로 잔돈 모아놓은 것들이 배달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그 동안 아끼고 절약한 교회 재정 잔고를 털어서 보내오기도 하셨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김현*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7년 전쯤 다일천사병원에 장기 입원 하셨던 박익* 할아버지의 할머니였습니다. 저희는 매우 반기웠으면서도 느닷없이 찾아오신 게 궁금하였습니다.

“우리 영감 갔어. 어제 장례 치뤘어. 우리 영감이 여기서 은혜를 많이 입었잖어. 여기 병원을 내가 어떻게 잊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찾아왔어....

이거. 내가 그 동안 파지 주워서 모아놔던 거야... 이제 영감도 갔고, 오늘 내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바뀔까봐...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찾아온 거야...”

그리고는 천사후원금이 든 봉투를 건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아...

수익원대의 재산을 아들의 빚으로 날려버리고, 빚쟁이들을 피해 주민등록도 말소시킨 채 숨어지내며 고통을 참기만 했던 할아버지. 상담을 통해 천사병원에 입원은 하셨지만 이미 당뇨로 썩어들어가던 할아버지의 발은 결국 절단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의족까지 해드렸었는데...

할머니를 만나면서 잊고 있었던 지나간 장면들이 되살아났고 이렇게 찾아오신 할머니를 대하러니 반가우 면서도 짠한 가슴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령의 몸으로 아픈 다리 끌고 다니시면서 파지 주워모은 돈을 이렇게 가져오시다니... 그냥 모른 채 지나가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건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천사후원금을 받아들었습니다. 부자들의 큰 후원금보다 수십배 빛나는 후원금이었습니다.

다시 빛속으로 사라지시는 키작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스함과 숙연함과 경건함이 솔솔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키작은 천사! 천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병원

아아... 여기는 다일천사병원입니다

글/ 김현자 간호과장(다일천사병원)



“책을 보내주세요”

다일작은천국에 환자들을 위한 도서관을 마련하였습니다.
빈 서고를 가득 채울 책을 기다립니다.
환자들이 마음의 양식을 흠뻑 섭취하도록, 그래서
자립자활의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책을 보내주시겠어요?
전화 : 02-2213-8004

아름다운 변화

중국에서 온 다일 유학생, 리일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



리일, 중국에서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 땅을 밟다

중국 훈춘에 있는 다일어린이집에 어려서부터 성장했던 리일은 두만강기술학교 제빵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빵 기술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갑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빵을 만들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며 선교사로써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리일에게 빵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지식과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선린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추천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학생들도 벌써 2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리일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다

한국말을 곧잘 할 줄 아는 리일도 수업시간에 듣는 단어들은 생소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니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도 함께 울고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쉽게 친해

질 수 없었어요. 특히 한국 친구들이 많이 쓰는 줄임말 때문에 더 소통이 되질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문화를 알고 또 모르는 것은 배워가면서 많이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 아이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학교생활도 많이 편해졌어요”



목안리 D.T.S 훈련을 받으며 공동체 가족, 훈련생들과 함께

어린시절, 새로운 가족이 돼준 중국다일공동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반가운 인사를 전하는 바른생활 청년 리일(이)에게 그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리일(이)은 초등학교 때 다일어린이집으로 오게됩니다. 이 곳에서 생활하면서 리일(이)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공부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들 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어린시절 다일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 저는 항상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그 마음에 맑은 물 붓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한국으로 유학 온 캄보디아 친구 리비다(좌)와 리일(우)

아이들에게 다양한 꿈을 갖게 해주고 싶은 꿈

“캄보디아에서 빵을 만들어 나누어 줄 때, 아이들에게 저는 최고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만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게 없으니 그런거였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야와 경험을 전해주고 꿈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대학생활을 하며 깊은 지식과 넓은 경험을 쌓았듯이 말이죠~아! 그리고 당연히 빵도 더 맛있게 만들겁니다. 학교 다니며 빵기술과 더불어 배웠던 초콜렛, 커피 등의 기술로 몸의 배고픔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봉사자 나눔터

밥퍼는 ○○○이다

밥퍼는 두저지 게임이다

-소속: 아이섹 이름: 김대환

섬김과 나눔은 한끼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고 갑니다. 두저지 게임에 비유한 것은 튀어나온 부분을 두드려 모두가 마음은 똑같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밥퍼는 희망의 등불이다

-소속: (주)시큐에이스 이름: 김세준

이 추운 겨울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노인분들을 따뜻한 곳에 모시고 따뜻한 밥 한 그릇 국한 그릇 나누며, 모실 수 있어 보람 찬 하루였습니다.

밥퍼는 웃음이다

-소속: (주)시큐에이스 이름: 김혜경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동료들, 함께하는 봉사자 분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았습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 보였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밥퍼는 희생이다

-소속: 한양대학교 이름: 남반석

처음 와본 밥퍼나눔운동본부는 봉사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맘과 정성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참여가 외롭고 배고픈 노숙인 분들에게 따뜻함이 되고 위료가 되는 것 같아 감동을 많이 받고 갑니다.

밥퍼는 사랑이다

-소속: 태진인터네셔널 이름: 차수진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한 끼를 먹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온다. 우리는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이분들은 한 끼를 먹는 이 순간만이 사랑을, 따뜻한 온정을 느끼겠지...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밥퍼는 친구다

-소속: 태진인터네셔널 이름:○○○

좋지 않은 날씨에도 '밥퍼'에 오는 어르신들에게 이곳에서 나누는 한 끼가 이만큼 소중하고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오늘 하루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는 것보다 배운 것이 더 많아서 감사했구요 밥퍼 모든 스텝분들 파이팅하세요!!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봄온아카데미
봄온아카데미에서 미래의 아나운서들이 봉사를 왔습니다. 멋진 외모와 목소리 만큼이나 멋진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매년 봉사 때마다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원공과대학
두원공과대학에서는 매년 초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봉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틀동안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바텍네트웍스
바텍네트웍스 첫 밥퍼봉사 왔습니다. 빨간 단채복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밥퍼 봉사를 섬겨 주셨습니다. 바텍네트웍스가 최고야 밥퍼가 최고야!



오탁호님가족(비건의료기)
오탁호님 가족이 콤팩트 채워진 밥퍼 저금통을 들고 봉사에 오셨습니다. 지난번 직장(비건의료기)에서 봉사하셨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돌아가며 가족과 함께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오셨습니다.



씨큐에이스
시큐에이스와 함께하는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이라는 플래카드 앞에서 임직원 모두가 봉사를 마치고 보람과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첫 봉사 오셨는데 열심히 봉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봉고차 가득 쌀을 싣고 밥퍼 앞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하얀 쌀밥 고슬고슬 잘 지어서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교회
밥퍼의 명예 본부장님이신 조용근 장로님께서 출석하시는 새로운 교회에서 첫 봉사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봉사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현재 임직원들과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인 상록수 봉사단에서 함께 봉사 오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상록수 봉사단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영eng
아영ENG에서 봉사하고 후원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밥퍼를 알고 오셨을까 했는데 파리영성수련을 받으신 영성벗님의 소개로 봉사 오셨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밥퍼에 관심을 갖아주시고, 또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사랑의
꽃배달
서비스

다일공동체를 후원하시는 회원님들이
다일플라워에서 꽃을 주문하시면,
사용금액의 20%가 다일공동체로 기부됩니다.
꽃구입과 함께 후원이 되는 사랑의 꽃배달
이용방법은 dail.flowerzip.com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주문합니다.
감사한 분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꽃으로 마음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보세요!

dail.flowerzip.com



01 <다일복지재단> 한국 NPO공동회의 NPO CEO강좌를 마치며...



03 <목안리다일공동체> 식사준비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피정 온 가족

국내분원소식

01 다일복지재단

다일 홈페이지 청소년 건전 E-브랜드 대상 10대 사이트 선정

다일공동체(<http://www.dail.org>)가 (주) 디지털YTN이 주관하는 '청소년 건전 E-브랜드대상' 10대 사이트에 선정됐습니다. '청소년 건전 E-브랜드대상'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과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해 건전 사이트를 발굴하는 캠페인으로, 네티즌의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선정돼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다일공동체는 이번 '청소년 건전 E-브랜드 대상' 10대 사이트 선정에 따라 YTN에 선정 사이트로 소개되며, 로고를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다일공동체 홈페이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NPO공동회의 NPO CEO강좌

2013년 1월 28일(월) 오전 7시 30분, 조금 이른 시작이지만 국내 NGO/NOF단체의 단체장님들이 밥퍼를 찾아 오셨습니다. 각 단체의 CEO들이 모여 단체의 비전을 나누고, 듣고 공감하고, 발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다일공동체 순서로 다일공동체 대표 최

일도 목사님께서 "토종 NGO, 청량리에서 탄자니아 툰투치까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02 다일천사병원

그릇 후원

롯데 백화점 청량리점에서 코렐 그릇세트 50pcs 기증해주셨습니다. 후원 받기까지는 다일천사병원의 박희선 약국장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천사병원 식구들이 예쁜 식기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기구 후원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던 황영준 선생님께서 병원 문을 닫으시면서 사용하셨던 수술기구들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일천사병원에서 더 많은 이웃들이 아픈 곳을 치료받고, 마음이 치유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3 목안리다일공동체

네 식구가 전해준 따뜻한 행복

1월 6일부터 이홍선(이른아침)님, 방민자(축복)님과 한술, 한희 네 가족이 목안

리에 피정을 왔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가족들끼리 마음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영성과 침묵의 성지인 설곡산에 올라 기도 14처를 돌며 기도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진지 담당자들이 있는데도 네 식구가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식탁에 둘러 앉아 사랑의 나눔을 가질 때에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방문을 통해 따뜻한 행복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마을에서 누리는 안식

늘 평화의 마을에 사랑과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시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박혁님, 평야님 그리고 배우 정선경님께서 두 아이들(유주, 유현)과 함께 오셔서 깊은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마다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재충전을 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기뻐집니다.

평화의 마을에 오세요

가평 목안리에 위치한 평화의 마을에는 새해부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시 생활에 지치고 힘든 분들이 쉽고 회복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노동의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고, 사랑을

DAIL NEWS



04 <설곡산다일공동체>
눈 덮인 설곡산의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05 <예향어린이집>
주님을 더욱 닮아 갈래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니 오세요!

04 설곡산다일공동체

겨울산이 부르는 소리

다일영성수련이 진행되는 설곡산은 찾아오는 벗님들에게 사계절 모두 다른 모습을 선물해줍니다. 특히 눈이 덮인 태고의 신비함마저 느끼게 해주고 엄숙함과 장엄함마저 느끼게 해주는 겨울이 참 아름답습니다. 눈이 덮여 있는 계곡을 오르며 열 네 개의 십자가와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14처를 오르면 어느새 마음이 정결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2시간이면 완주하는 설곡산을 등반하면 하나님의 동산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감탄 할 수 밖에 없는 능력봉과 일치봉 그리고 응답봉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고요하게 머리 숙이면 이곳이 바로 영성과 침묵의 성지인 설곡산 다일공동체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 다일의 카페인 유빌라떼에서 음악과 커피 향내음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겨울산, 설곡산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어서오세요!

05 예향어린이집

자전거 안전교실(구청방문교육)

1월 17일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실물자전거와 함께 동영상자료를 시청하며 자전거의 명칭, 자전거 바르게 타는 법, 자전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직접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보며 수신호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후에는 사후활동지를 통해 자전거 안전교실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유아안전교육-소방대피훈련

1월 21일에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소방대피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시에 불이 꺼지며 사이렌소리가 들리자 놀이를 하던 영유아들이 놀이를 중지하고 비상 대피로를 따라 선생님과 함께 비상구로 대피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고개를 숙여서 불길을 피하여 비상구로 안전하게 대피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탈출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삼삼오오 모인 예향친구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고 친구들을 확인하며 소방대피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수료 및 졸업사진 촬영

1월 24일 예향어린이집 친구들이 한 해를 마감하며 수료 및 졸업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단정한 옷을 입고 예쁜 미소를 보이며 한 해 동안의 즐거웠던 추억을 생각하며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1월 생일잔치

1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도, 생일을 축하해 주던 친구들도 모두 함께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닮아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도 생일을 축하해주는 친구와 선생님들도 모두 얼굴에 함박웃음 가득했던 즐거운 생일잔치였습니다.

해 외 분 원 소 식

06 네팔다일공동체

새로운 스텝 수타니 간사

작년에 3개월간 자원봉사자로 성실하게 봉사했던 수타니 자매님이 올 1월부터 네팔다일공동체의 정식 스텝이 되었습니다.



06 <네팔다일공동체>
열심히 공부중인 hope class 학생들



07 <베트남다일공동체>

장춘오누리교회팀 봉사를 마치고 힘차게 점프



08 <중국다일공동체>

왕츠롱 환영하고 축복해~

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 그녀는 기혼으로 어찌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치는지 스텝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칭찬 일색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있는데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모두들 그녀의 소리 없는 섬김에 그만 반해버렸습니다. 영어를 전공해서 마침 코이카사업으로 채택된 대안학교 교사로서 안성마춤입니다. 귀한 자매를 스텝으로 추천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07 베트남다일공동체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노동조합 지원봉사
신한은행 호치민센터 직원들과 출장차 베트남을 방문 중이던 신한은행 노동조합 김국환 위원장님 일행이 동행하여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온 몸이 땀으로 젖도록 배식과 설거지로 이웃을 섬기셨습니다. 봉사를 오신 모든 분들이 힘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사비를 모아 밥퍼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중국 장춘오누리교회 이웃리치팀 봉사
중국 장춘오누리교회 이웃리치팀 11명이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에 봉사를 왔습니다. 인솔자 김종곤 전도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학교에 다니는 한국의

유학생입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것을 택하기 보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베트남에 왔습니다. 비행기를 바꿔 타며 새벽에 도착한 피곤한 몸상태와 중국 장춘과 50도가 넘는 온도 차이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포스코 베트남 초코파이 나눔

포스코베트남에서 초코파이 14박스(약 1,300개)를 후원해 주셔서 식사하러 오신 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선물을 받는 사람 모두 어린 아이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웃으며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선물의 크고 작고를 떠나 함께한 시간과 정이 초코파이를 더 맛있게 만들었나 봅니다.

08 중국다일공동체

아이들의 겨울방학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이 시끌시끌합니다. 멀리서 공부하는 대학생 형님들과 누나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안에 더욱 생기가 도는 것 같아 좋습니다. 지난달 김현휘부터 시작된 볼거리가 전염되어 현재 요이판과 박진우가 치료중입니다. 볼거

리가 더는 퍼지지 않기를 건강하고 즐거운 겨울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중국다일공동체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왕츠롱(12세, 남, 한족)은 아버지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계셔서 할아버지와 살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지내며 기쁨이 잦고 자연스럽게 학교보다는 오락실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할아버지께서 울며 데려오셨습니다. 새 가족이 된 왕츠롱이가 집과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어 맑고 밝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연변과기대 봉사활동

10년째 중국다일공동체에는 연변 과기대 대학생들이 방학마다 봉사활동을 옵니다. 올해에도 삼주간의 일정으로 대학생들이 학습지도와 특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일어린이집 신문에 소개되다

중국의 두만강 신문 1면 전면에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다일어린이집'이라는 제목으로 다일어린이집 관련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일어린이집 전반의 내용과 소방관련시설 설비완료 등 좋은 내용의

DAIL NEWS



07 <캄보디아다일공동체>
김혜경 원장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08 <필리핀다일공동체>
책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답니다!

기사가 나와서 다일어린이집을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07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캄다일의 새로 오신 원장님

김혜경 원장님께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로 사명실현지가 옮겨지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인수인계차 와 계십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건강하게 잘 적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김혜경 원장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혜경 원장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캄다일 청소년 예배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청소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시간에 청소년들은 따로 모여 예배도 드리고 성경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청소년 아이들 또한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 캄보디아 땅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제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스러운 봉사단

수원 YMCA, 한남대, 다일교회, 전주신 흥고등학교, 한국스카우트연맹 봉사팀들이 일주일에서 열흘간의 일정으로 캄

보디아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밥퍼와 빵퍼 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실 학생들을 위한 교육봉사와 집짓기, 배 만들기, 도서관 벽화그리기 등을 해주셨습니다. 온 맘으로 맘 흘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으로 뜨거운 거울을 캄다일에서 보내기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08 필리핀다일공동체

Dream Helper 도서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개원한 Dream Helper 도서관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자체가 생소한 아이들이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오더니, 이제는 밥퍼가 끝나면 앞다투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큰 눈을 반짝이며 책을 읽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지요! 이 도서관이 아이들의 꿈을 자라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비어있는 책장을 아이들의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실 아름다운 손길도 기다립니다.

꿈 천사(1만원, 책한권 기증)가 되어주세요.

봉사와 후원나눔 - (주)비전

1월 7일에는 포항에 있는 (주)비전에서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춤도 추고 축복송을 부르며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밥퍼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직접 배식도 하며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열심히 봉사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날 하루의 배식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와 후원나눔 - 부산대학교 대학생들

1월 8일에는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수업에 함께 들은 학생들로 강단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도 감기고, 오카라나연주, 리코더 연주 등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힘찬 패기와 열정으로 아이들의 선생님이며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새해에도 필리핀다일공동체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천사님들을 기다립니다. 짧은 단기선교라도 찾아오시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치아가 아픈 아이들이 많지만 기본적인 처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지이기에 치과를 포함한 의료선교팀의 방문도 환영합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1월 신규후원

※ 2013년 1.1~1.28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주)선유에이지, (주)시큐에이스, (주)해우촌, Don Lee, HOSPIRAK, 가수경, 강경정, 강민성, 강성애, 강순열, 강영득, 강옥규, 강일식, 강현숙, 강희복, 고경숙,故박익양, 고상석, 고종구, 공금주, 광광성, 광옥희, 광현영, 광희자, 구본재, 구순림, 구혜숙, 권미라, 권정은, 권진구, 김선숙, 김경옥, 김귀향, 김규환, 김금순, 김기영, 김대윤, 김대일, 김대진, 김동균, 김명자, 김명중, 김명호, 김문자, 김미란, 김미진, 김봉희, 김상범, 김상숙, 김상아, 김상윤,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숙, 김성준, 김성혜, 김숙남, 김순정, 김애진, 김연오, 김연주, 김연중, 김완진, 김용구, 김용배, 김용욱, 김우택, 김우정, 김윤하, 김은미, 김은미, 김은진, 김일홍, 김정래, 김정희, 김중규, 김중하, 김주연, 김주희, 김주희, 김지용, 김진환, 김중희, 김태순, 김태훈, 김병호, 김해경, 김한권, 김현실, 김혜경, 김희자, 김효진, 나눔과섬김의교회, 남반석, 네팔형제자매들, 노영지, 다일나눔바자회, 대한지적공사, 두문교회장세한, 메타비경영연구원, 명은혜, 명재석, 모금함(유지킴), 문경, 문설중, 문정일, 미광고회권사회, 민경자, 민은식, 박경, 박남래, 박남준, 박영규, 박영화, 박석범, 박양신, 박예진, 박우성, 박정란, 박정래, 박정은, 박제영, 박준갑, 박준범, 박중서, 박태연, 박현규, 박혜련, 박효신, 배경란, 배성재, 배유원, 배중환, 배태욱, 변미연, 부중21회, 비겐미즈미중임점, 비겐의료기오탁호, 비엔피파리바은행서울지점, 새문안교회(김상철), 새포권사회, 서가영, 서문희, 서부석, 서유영, 서준희, 서해석, 설일수, 성령교회, 세바스찬, 손건웅, 손민영, 손정옥, 송경숙, 송경원, 송동훈, 송미경, 송성애, 송일식, 송준현, 송형기, 송홍배, 신광순, 신동순(박찬화), 신소영, 신용년, 신현석, 심상록, 안경자, 안문희, 안신영, 안혜숙, 양기호, 양무리교회중고등부, 양성미, 양영민, 양원일, 엄규설, 엘케이부산영양소슈무, 엠주(mzo), 영광침례교회, 예정통합총회(유지킴), 오영민, 오우신영김주, 오재민, 오정숙, 오정훈, 오혜정, 우사민, 우사윤, 운전철교회교육부, 유미란, 유병호, 유영례, 유현미, 유현미, 유현승, 유현희, 유효림, 윤계옥, 윤석하, 윤성희, 윤여규, 윤옥성, 윤용필, 윤종아, 윤진희, 윤치영, 윤홍식, 김미숙, 이강재, 이경림, 이권행, 이규천, 이금순, 이기연, 이덕순, 이동순, 이동호, 이두현, 이명숙, 이명숙, 이민선, 이민호, 이병식, 이봉선, 이삼미, 이상복, 이상형, 이상희, 이상희, 이새균, 이선우, 이선희, 이서기, 이상대, 이상수, 이상재, 이소연, 이수연, 이영경, 이예성, 이용식, 이원복, 이유미, 이윤식, 이은진, 이은홍, 이은홍, 이장규, 이재영, 이재민, 이재희, 이정민, 이정자, 이정호, 이재영, 이재호, 이종복, 이종분, 이종희, 이종락, 이지수, 이지연, 이진애, 이찬희, 이초롬, 이춘례, 이한중, 이향순, 이현자, 이현희, 이혜민, 이희진, 임귀순, 임녀순, 임민숙, 임보성, 임선화, 임선희, 임정순, 장문순, 장순분, 장정규, 정하림, 정하일, 전경숙, 전민경, 전민경, 전민경, 전우지, 전우진, 전자결제비회원, 전해수, 전호수, 절대다닌느 할머니, 정구영, 정민희, 정석호, 정순이, 정영선, 정영옥, 정영옥, 정윤하, 정은혜, 정정숙, 정중갑, 정혜진, 정환기, 정희옥, 조경숙, 조미경(김금식), 조미라, 조병식, 조성환, 조수경, 조연우, 조영민, 조원숙, 조윤상, 조재남, 조현정, 주경희, 주혜선, 지상규, 차성환, 최길자, 최문석, 최병성, 최보라, 최상운, 최석준, 최선희, 최숙자, 최영식, 최영숙, 최옥매, 최은미, 최은정, 최재인, 최정숙, 최주은, 최준호, 최지안, 최지형, 최희선, 축구공, 파인종합건설(주), 포동산기도원, 하윤해, 한국스카우트경기본부연맹, 한상희, 한현주, 한윤정, 한윤택, 한해옥, 함화수, 허석, 현소라, 홍석호, 홍성녀, 홍성록, 홍영민, 홍옥남, 홍지유, 황국현, 황도성, 황아름, 황용훈, 황인경, 황정순

받퍼나눔운동 후원

[후원금]
 케이비즈사랑나눔, 이희숙, 라이코베베, 광현교회, 동일교회, 황재영, 서울대학교 U3A동문회, 안승술, 최향봉, 아영ENG, 일산은혜교회, 이영숙, 박종일, 이종욱, 국순애, 신성기, 무명, 상록자원봉사단, 공무원연금공단, 바텍이우홀딩스 김나나, 심수자, 최성봉, 맹은혜, 한국전기안전공사, 김규자, 김효진, 양순화, FMS코리아, 구로순복음교회학생회, 러쉬앤캐쉬, 엠앤글로벌, 서일중교회, 서창선, 김찬훈, 부중21회, 김길자, 김향숙, 대한지적공사, 메타비경영연구원, 이동원, 에이엠지코, 온진희(러브피플), 최경근, 윤순옥, 피엔피파리바서우, 피엔피중권, 국방홍보원, 이일옥, 민은식, 호스파라코리아, 오정훈, 심상록, 김우정, 최주영, 이영숙, 수도권산악회, 신민숙, 포동산기도원, 권혜진(휘슬러비즈), 윤현숙, 정신남, 비겐미즈미중암점, 김형선(뿌까), 30500아띠산악회, 홍경화, 김성철, 김성욱, 오탁호, 두원공과대학교

[후원물품]

12/22 이현을-쌀, 무명-고추가루
 12/24 하이트진로-생수, 경흥농장-굴, 코레일관광개발-쌀, 사조대림-호떡
 12/27 동서울농협-쌀, 서울메트로-쌀, 무명-쌀, 가나다푸드-김치
 12/28 김영월-쌀
 1/5 신명원-쌀, 무명-쌀
 1/8 경흥농장-굴, 가나다푸드-김치
 1/9 드림재단-빵, 금란요리커피피제과제빵학원-쌀
 1/10 이은공-쌀, 대한적십자-라면
 1/12 최양애-생고기
 1/15 럭키서울-티셔츠, 가나다푸드-김치
 1/16 동방재활복지관-빵

[후원약정자]

전우진, 윤희아, 정은혜, 남반석, 김문라, 윤옥설, 이지수, 김지연, 이연화, 신소영, 윤성철, 정희옥, 전해수, 백미연, 조원숙, 김은진, 허권, 이규천, 김용배, 각중서, 이상희, 김중규, 김중화, 이일용, 권정은

< 해외분원 >

중국대일공동체

[방문&후원]
 김성재(Obey & Praise), 이숙의(시카고 스마일, 스마일피기),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더 목사), 박중근 목사님(모자이크교회), (주)소명철강, 평생 후원자, 대전 동안교회, 한기모, 차지훈, 지춘란, 심형, 김학용, 강영남(홍콩), 이연호(상해)

베트남대일공동체

[나눔회원]
 아산상선(4,158,000동), 전묘환 · 김순자, 신한은행호치민센터(\$500), 주)에즈윅, 대우INTERNATIONAL, 신한은행노동조합(\$500), 아리랑화학, 사이공한인연교회, 포스코베트남(600만동), 최재영 · 유해정, 우리은행호치민지점(420만동), 한강교회 브레드

[정기후원]

최혜민, 최혜민, 최기흠, 남승현, 김순자, 송운서, 배준익, 추원미

[물품후원]

도넛도넛(도넛 388개), 포스코ICT(쌀 40kg,바나나), 신한은행호치민센터(초코파이 10box), 최홍하가족(요구르트 130개, 사탕), 포스코베트남(초코파이 14box), 호치민지상사협의회(라면 5box), 한강교회(의류,약품,치약)

[모금함]

포스코베트남(827,000동)

[자원봉사자]

포스코베트남, 김동호 · 김대업 · 조윤현 · 우정재 외21명, 대우INTERNATIONAL 최시호 · 이준석 외 8명, 포스코ICT 김광석 · 정형선 외 5명, 우리은행호치민지점 최철우 · 박도현 · 김병훈 외 10명, 신한은행호치민센터 김휘진 외 10명, 신한은행노동조합 3명, 송채린 · 이창순 · 최용하 · 안연숙 · 최다원 · 이형주, 한강교회브레드 11명, 중국장춘은누리교회 아웃리치 김정곤 외 10명, 박수환

필리핀대일공동체

[방문&후원]

김건희, 임예민, 이정숙, 필리핀PTS한인교회, 신동미, (주)비전, 김순애, 신동환, 전용민, 지일환, 한상소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천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대일공동체

[방문&후원]무명 2명
 클럽나우 오성훈, 코이카단원 이가영, 전주 신흥고, 한동대, 김준 · 김벌 · 유승조 광주 진남초,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 유창훈처장, 강원도 강릉장로교회, 광동진 · 권오현, 김영희집사, 안준호 · 안동근 · 홍석선 · 홍재나 · 오창민 · 오승민, s-에 대들보 회원 이동, 김은혜, 안양삼성교회, 별간편(해남지국), 포콘스 정낙환 사장, 이동호 · 이주호, 민국 · 제국 · 창민이네, 성현우, 최재홍, 이정애 · 이경숙, 이용순 · 최창례 · 김미경 · 여상란, 혜성 · 성민 · 성희 가족, 임은민 · 김재현 · 김영기 · 김경선 가족, 황서연 · 유현빈 · 황나연 · 유현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이상현 회장, 민주평통 이명숙, 민주평통 노경운, 민주평통 최홍립, 최일, 조옥희, 파농펜체일교회, 대한민국경북 고위군 의용소방연합회, 하용욱 · 권점순, 금산군 새마을협의회, 충청북도 단양군 청주 주민복지실 희망복지 자일단, 김유미 · 홍지희, 김형원 · 방옥희, 안형선 · 유영순 · 안은선 · 양명운, 신라대학교, 샘물교회, 까도, 이민주 · 이재한, 이래건, 이형성 · 이병철, 강은서 · 강승준, 서울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대한청소년총회단 경기도연맹, 대한청소년총회단 경기도연맹, 짐보리코리아 한국지사장 이경희, 계명대 진용주, 드래곤투어 윤지석 · 권민정, 관악교 김정은, 김여진 · 임지연 · 임서윤 · 허재원 · 김연주, 경북 포항 김석수, 김희옥, 울산 박선생 창의역사 지리교실, 한남대, 수원YMCA, 하나투어 클럽나우, 목포 선연교회, 한국교통대학교 제11기 해외봉사단, 청주체험학습, 김이련학생, 이동성목사, 밀양성동교회, 박철수목사님 외 성도일동, 강현주, 밀양남부교회, 밀양초등학교, 양정모임회, 은누리교회, 아주대, 아주대 경영학과 김경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사회적기업

다일영성수련



2013년
3월

3월 8일(금) ~ 3월10일(주일) | 침묵묵상수련

3월18일(월) ~ 3월22일(금) | 1단계 143기 아름다운 세상찾기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질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라는 영성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었다.”

-한비아(전 월드비전 구호팀장)

설곡산 다일공동체 시설이용안내

설곡산다일공동체는 침묵의 성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 정신과
나사렛 예수의 영성을 침묵과 노동속에서 구현합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 섬김과 나눔을 살아가기 원하는 분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쉬를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 H: 010)7756-8004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1-0166-0367-83 예금주:이태형)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 Tanzania